

##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는 공병장교의 다짐

## 국방부 시계는 흐른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해지자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UN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도 생명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1990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매년 7월 1일을 ‘물의 날’로 정해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물의 의미를 되새기는 각종 행사를 개최해오다 1995년부터는 ‘세계 물의 날’과 일자를 같이해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연 강수량이 1283mm로 세계 평균(973mm)의 1.3배다. 그러나 좁은 국토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 강수량은 2705㎥로 세계 평균(2만2096㎥)의 12% 수준에 불과해 국제적으로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이용량 333억 톤 중 절반을 자연 하천수 취수로 충당해 조금만 가물어도 취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연 재해·재



함진황 소령(진)  
육군대학 소령지휘참모과정

난 발생에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물의 관리와 공급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에 한반도라는 전장에서 물은 유사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미래는 고도의 산업시설 발달과 도시지역 확장 등으로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 이때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요소에 의해 급수와 관련한 병참선 및 국가 기반시설이 파괴된다면 군 자체적인 지원 소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처럼 유사시 생존에 필요한 수자원을 긴급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병과가 공병이다. 공병은 급수원을 개발하고, 오염된 물을 정수해 보급 계통으로 지원하는 급수지원을 한다. 공병부대가 설치·운영하는 급수장의 정수장비를 활용하면 오염수·해

수 등을 1시간에 5600L 가량 정수해 공급할 수 있다. 즉 음용이 전혀 불가능한 수원지의 물도 상점에서 판매하는 생수처럼 만들어 전투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의 심정(깊은 우물)을 활용해서 급수하거나 제한 댐 시추부대가 새로운 심정을 개발하기도 한다.

필자도 공병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위관장교 시절 급수지원 훈련을 통해 전투원들에게 안정적인 취수지원을 한 경험이 있다. 불안정한 미래, 불확실한 전장에서 생존의 필수요소인 물 공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생명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 그리고 군에서 급수지원의 중요성을 각인하면서 급수지원을 담당하는 공병장교로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영관장교가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본다.

지금도 야전에서, 전투 현장에서 묵묵히 급수장 설치 훈련을 하면서 전투원들의 안전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공병 전투원들에게 격려·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상현 상병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난 1월 10일은 내 군 생활에 의미 있는 날이었다. 18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확히 절반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싶으면서도 생각보다 빠르기도 하다. 군의관 복무를 포기하고 카투사(KATUSA)로 입대한다고 주변에 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국방부 시계는 흐른다”는 것이었다. 힘들고 지겹더라도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면 결국 전역이 온다는 위로였으리라.

국방부 시계가 절반 흘러간 지금, 이 말은 내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왕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게 쓰자는 것이다. 시계는 우리가 성실하게 복무하든, 게으름만 피우든 흐른다. 카투사에게 주어진 개인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든, 허비하든 흐른다. 어차피 흐르는 시간이라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조국과 자신을 위해 잘 채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자 지금까지의 내 군 생활을 돌아보게 됐다.

100점 만점에 60점. 내 군 생활 전반전에 점수를 매긴다면 그 정도를 주고 싶다. 큰 사고 없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해왔고, 부대원들과 적당히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 딱, 그 정도가 다였다. 영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체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지내왔다.

일과 시간이 끝나면 누워서 유튜브만 보기 바빴다. 외박은 놀러 나가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물론 군인으로서 기본 역할만 다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흔히 중간만 가라고들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딱 60점 정도다. 우리 20대의 소중한 18개월을 전역 날짜만 세면서 보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카투사로서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국방부 시계’가 마침내 한 바퀴를 도는 날 스스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한미동맹 강화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개인 시간에 영어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다. 부대원들과도 오래도록 남을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전역 후를 위해서는 평소 관심 있던 마케팅과 디자인 관련 책을 읽고, 외박 때면 의사 선배들을 만나 진로 조언을 듣기도 한다. 이런 노력이 당장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전역하는 그날에는 더 나은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중국 고대의 탕왕은 세숫대야에 이 말을 새겨 두고 매일 되새겼다고 한다. 하루하루 새로워진다는 뜻이다. 우리 카투사들도 군 생활 548일 동안 매일 조금씩 새로워진다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물론 우리 자신의 미래까지도 멋지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국방부 시계는 매일 흘러가기 때문이다.

## 장단·사천강지구전투로 본 군수지원의 중요성

‘전투는 무기가 하지만, 전쟁은 물자가 한다’는 명언이 있다. 장단·사천강지구전투가 발생한 지 7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과거 전쟁사를 토대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군을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위의 전투를 이끈 진정한 승리의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장단·사천강지구전투는 자랑스러운 승전(勝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해병대 전투 중 가장 긴 전투로 유명하다. 장단지구는 현재 북한 개성시 사천강 유역이며, 전투는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11km에 달하는 구간을 전면 수비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1952년 3월 17일 한국 해병대 1연대는 미 해병1사단과 함께 중동부 전선에서 장단지구로 이동해 수도권 방어했다. 전투는 총 네 차례에 걸쳐 펼쳐졌다. 동·남쪽으로 임진강이, 서쪽으로 사천강이 흐르는 이 지역은 북고남저(北高南低)의 지형으로 아군의 작전행동에 제한이 따르는 불리한 곳이었다. 한미 해병대는 이러한 조건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백동훈 해병중사  
해군군수사 수중항공관리처

때까지 장장 16개월간 방어 임무를 완수했다.

당시 아군은 776명이 전사했지만, 적군 1만4000여 명을 사살해 ‘최소 피해, 최대 전과’라는 작전 결과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아군에 유리하게 확정 짓는 데 기여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서부전선을 만들었고, 해병대 확대 개편의 계기가 됐다.

역대 전쟁사를 보면 적 군수지원의 허점을 파고들어 큰 전력 격차를 극복한 사례들이 많다. 장단·사천강지구전투는 적을 공격하는 전술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군수지원 능력도 탁월했다.

전쟁이 지속되면 전투원의 사기뿐

만 아니라 보급 상황이 열악해진다. 전 세계의 어느 전쟁사를 봐도 다르지 않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지속적인 군수물자 지원이 가능하기에 전투원들이 오롯이 전투에 전념하고 있다.

필자가 해군군수사령부 기동·일반장비팀에서 맡은 차량 및 전군 군수정비 임무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이뤄진다. 장비 운용 중 부대에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초과돼 운용이 제한된다면 훈련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또 장비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력에 의존하면 능률이 저하돼 전쟁 성패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신속한 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철저한 군수계획 없이 성공하는 훈련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은 없다.

우리는 ‘전승을 보장하는 완벽한 군수지원’ 달성과 끊임없는 군수혁신을 위해 부단히 달려가고 있다. 필자는 군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의 선진화된 군수지원을 위해 열정을 쏟을 것이다.



###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래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700자 이내)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문의)로 제출  
 기타: ‘병영의 창’에 게재된 분에게는 매일 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치킨 세트 기프트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문의: 군 전화 947-3718, 일반전화 02-2079-3718